화순 청풍초 학생들 장편영화 도전… '할머니와 나와 민들레'

김대중 전남교육감 '음악선생님' 특별출연

전남 화순 청풍초등학교 전교생이 50분 안팎 장편영화인 '할머니와 나와 민들레' 제작에 도전한다.

학생들과 영화 제작을 하고 있는 영화사 무당벌레필름은 '할머니와 나와 민들레' 영화 촬영을 이달 마친다고 2일 밝혔다.

영화는 청풍초 학생이 된 치매 앓는 할머니와 손녀와 학생들이 화순탄광 탐방을 앞두고 갈등을 벌이는 내용이다.

화순탄광은 일제 강점기 첫 채굴을 시작한 이후 118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문을 닫았다. 학생들은 티격태격 성장 과정을 겪으며 화순의 정체성과 탄광 노동자들의 희생과 땀의 가치를 알아가면서 우정과 가족의 소중함을 느낀다.

촬영은 청풍초, 마을, 폐광을 배경으로 지역민들이 배우와 제작진으로 참여했다.

특히 김대중 전남도교육감도 깜짝 출연을 한다.

김 교육감은 카리스마 넘치는 음악선생님 지휘자로 등장해 학생들의 따듯한 소원을 들어주는 키다리 아저씨 캐릭터로 등장한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청풍초 어린이들이 제작한 영화가 '제1회 전라남도교육청 작은학교 영화·영상제'에 초청 출품된 자리에서 감독의 배우 출연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배우로 데뷔하게 됐다.

영화는 오는 12월 제2회 전라남도교육청 작은 학교 영화·영상제 출품을 앞두고 있다.

총괄 지휘를 맡은 박기복 감독은 "지역을 배경으로 한 지속적인 영화 제작 작업은 인구 소멸 위기에 대처하고 작은 학교를 살리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 화순 청풍초등학교 전교생이 출연한 장편영화 '할머니와 나와 민들레'. 사진=무당벌레필름

지역 출신인 박 감독은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 소재와 청소년 영화를 꾸준히 제작·지도하고 있다.

화순/김종환 기자

보성군, '독립운동가 벽화에 담다' 프로그램 운영

지역 청소년 대상 체험형 역사교육 통해 호국정신 함양

보성군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한 역사 체험 프로그램 '독립운동가 벽화에 담다'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역사기념관 탐방, 벽화 그리기, 사진 전시, 보훈 기념품 배부 등 다채로운 체험을 통해 지역 출신 독립운동가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청소년들이 호국보훈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프로그램은 지난 6월 9일부터 27일까지 보성남초등학교, 보성중학교, 득량중학교 등 3개교에서 총 50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참여 학생들은 먼저 보성 의병기념관을 찾아 지역 독립운동가와 의병 항쟁의 의미를 배우고, 이후 '내가 만난 역사, 내가 그리는 역사'를 주제로 각 학교 벽면에 독립운동가의 얼굴과 태극기, 나라 사랑을 담은 한 벽화를 그렸다.

벽화 작업에는 전문 작가인 아트그린 강수연 씨가 현장 지도를 맡아 작품의 예술성과 완성도를 한층 높였다.

각 학교 복도에서는 '역사의 한 장면' 사진 전시회도 함께 열렸다. 전라남도 보훈회관이 소장 중인 독립운동 관련 사진 10점을 학교에 전시해 학생들의 역사적 관심을 끌었으며,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상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보성/김운기 기자

장성군 "어르신 빨래는 저한테 맡겨 주세요"

'찾아가는 이동세탁차량' 전달식… 세탁물 수거·세탁 후 배달

장성군이 최근 군청 앞에서 '찾아가는 이동세탁차량' 전달식을 가졌다. 김한종 장성군수, 김동극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김종인 장성군사회복지협의회장, 박종태 장성군지역자활센터장 등 다수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찾아가는 이동세탁차량'은 저소득 어르신 등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가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빨래 차'다. 세탁물 수거부터 배달까지 지원해 주민 호응이 높다.

기존 세탁차량이 운행한 지 10년이 넘어 교체가 필요해지자 장성군은 지난해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동세탁차량 매칭지원사업' 공모를 신청해 선정됐다. 총 8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신형 이동세탁차량 도입을 추진했다.

새로 제작된 이동세탁차량은 1.2톤 규모 화물차로, 24kg 세탁기 2대를 탑재하고 있다. 운영은 군의 지원을 받아 장성군지역자활센터가 맡는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찾아가는 이동세탁차량이 사람 중심의 따뜻한 복지 실현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성/황해연 기자

함평군 새마을부녀회, 사랑의 밑반찬 나눔 활동 펼쳐

전남 함평군(군수 이상익)이 소외된 이웃을 위한 따뜻한 반찬 나눔으로 지역사회에 사랑을 실천했다.

함평군은 지난달 30일 함평군새마을부녀회(회장 변정례)와 함께 '2025 사랑 나눔! 생명밥상 제공 사업을 추진하며 독거노인, 장애인 가정, 조손가정 등 관내 소외계층 150가구에 밑반찬을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활동에는 부녀회원 30여 명이 참여해 열무김치 등 밑반찬 6종을 정성스럽게 손수 마련했으며, 함평군 9개 읍·면 부녀회원이 직접 대상 가정을 방문해 건강과 안부를 살피며 훈훈한 정을 나눴다.

변정례 함평군새마을부녀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사랑과 나눔을 실천해 주신 새마을부녀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군에서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세심하게 살펴 소외되는 이웃이 없는 따뜻한 함평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함평/전광춘 기자

강진에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 공간 생기다

강진자비원, KMA 큰마음 어린이도서관 문 열어

지난 26일 강진자비원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한 공간이 문을 열었다. 바로 큰마음 어린이도서관이다. 이 도서관은 KMA 한국능률협회와 국제구호개발단체 월드비전의 지원으로 탄생했으며, 아이들이 책을 통해 꿈을 키우고 마음껏 상상할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다.

도서관 개관식에는 월드비전 조명환 회장, 한국능률협회 최권석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한국효도회 강진지역회 마삼섭 회장 등 지역 관계자들과 아이들, 운영위원들이 함께 참석해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이 도서관은 전국에서 15번째로 문을 연 'KMA 큰마음 어린이도서관'으로, 총 3,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기존의 열악한 도서관을 새롭게 단장했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도서와 환경을 갖춘 이 도서관은 단순한 독서 공간을 넘어 정서적 안정과 배움의 기회를 함께 제공하는 소중한 장소다.

최권석 상근부회장은 "이곳이 아이들이 자유롭게 책을 읽고 즐기며 서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명환 회장 역시 "15년 넘게 꾸준히 지원을 이어온 한국능률협회에 깊은 감사를 전하며, 이 도서관이 아이들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현실로 이어가는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재영 강진군 복지환경국장도 "새로운 공간에서 아이들이 꿈을 키우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이런 기회를 주신 한국능률협회와 월드비전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군과도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지역사회는 강진자비원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강진군은 자립 기회 제공과 경제적 지원을 이어가고 있으며, 한국효도회 강진지역회는 매월 생일을 맞은 아이들에게 문화상품권과 간식을 전달하며 따뜻한 관심을 이어오고 있다. 강진/손경설 기자

광전매일신문 기사제보 TEL 062-525-9775 FAX (062) 528-4566